

강의 계획서

1학기	강좌명: Photo Craft	강사: 유별남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수업개요	무의식적인 촬영 습관에서 벗어나 사진의 시각적 언어(문법)를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과정입니다. 렌즈, 빛, 시간, 공간을 단순한 기술이 아닌 해석의 도구로 다루며, 기술적 원리와 인문학적 사유를 결합하여 자신만의 시선을 완성합니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렌즈, 앵글, 심도, 빛 등 사진의 기술적 요소를 인문학적 '시각 언어'로 이해하고 체화한다. 감각에 의존하던 촬영을 넘어, 자신의 선택을 '설명 가능한 사진' 능력을 갖춘다. 1학기 과정을 통해 변화된 시선을 증명하는 10~15장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한다. 	
1	3/3	응시와 기록 (The Gaze) 사진은 '보는 것'과 '보이는 것'의 대화다. 기술적 조작 이전에 '본다는 행위'의 본질을 탐구하고, 나만의 시선이 머무는 지점을 진단한다.
2	3/10	거리의 심리학 (Distance) 줌(Zoom)은 확대가 아니라 대상과의 '심리적 거리'다. 광각의 방관과 망원의 몰입 등 렌즈 화각에 따른 정서적 변화를 이해한다.
3	3/17	시선의 위계 (Angle) 하이/로우 앵글이 만드는 피사체와의 권력 관계를 이해한다. 물리적 자세가 사진의 윤리적 태도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학습한다.
4	3/24	선택과 소거 (Framing) 프레이밍은 세계를 잘라내는 '소거'의 행위다. 보여줄 것과 감출 것을 결정하는 프레임의 미학을 통해 주제를 명확히 한다.
5	3/31	심도의 문지방 (Focus) 아웃포커스의 고립과 팬포커스의 민주주의. 조리개 수치를 기술이 아닌 이야기의 화법(주제 부각 vs 맥락 설명)으로 활용한다.
6	4/7	빛의 조각 (Chiaroscuro) 빛과 어둠의 대비로 입체감을 빚는다. 렘브란트 조명 등 빛의 방향과 질감이 피사체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지 탐구한다.
7	4/14	시간의 인상 (Time) 셔터스피드는 시간을 자르거나(정지) 늘린다(흐름). 움직임을 궤적으로 표현하거나 응축하여 시간성을 시각화하는 법을 익힌다.
8	4/21	기억의 온도 (Color) 차가운 새벽과 따뜻한 노을. 화이트 밸런스(WB)를 단순한 색 보정이 아닌, 사진의 정서적 온도를 결정하는 장치로 활용한다.
9	4/28 (25,26)	강릉 현장 워크숍 (Workshop)- 25,26일 워크숍으로 대체 강의실을 떠나 낯선 공간에서 빛과 공간을 탐구하며 1~8주차의 이론을 현장에 적용하는 집중 촬영 실습.
10	5/12	1학기 중간 점검 (Salon) 나의 사진을 '언어'로 변호하기. 지난 과제들을 리뷰하며 기술적 선택의 이유를 미학적 논리로 설명하는 디펜스(Defense) 시간.
11	5/19	일상을 낯설게 하기 익숙한 방 안이나 동네를 탐험한다. 사소한 사물에서 우주를 발견하는 미시적 관찰 훈련.
12	5/26	도시의 기호학 (Signs) 도시는 거대한 텍스트다. 거리의 간판, 흔적, 상징들을 기호학적으로 해석하고, 도시가 보내는 사회적 신호를 포착한다.
13	6/2	병치와 은유 (Montage) 사진 한 장은 단어, 두 장은 문장이다. 서로 다른 두 사진을 나란히 놓았을 때 발생하는 제3의 의미(몽타주)와 충돌을 실험한다.

14	6/9	시퀀스의 운율 (Rhythm) 사진 배열은 음악이다. 강-약-중-강의 리듬으로 시선의 흐름을 지휘하며 10장 내외의 사진으로 기승전결을 구성한다.
15	6/16	작가의 고백 (Statement) 사진이 못다 한 말을 돋는 텍스트. 자신의 작업 의도와 철학을 명확하고 감각적인 언어로 정리하는 작가 노트 작성법.
16	6/23	1학기 파일 "시선의 증명" - 지난 16주간 변화된 나의 눈을 증명하는 포트폴리오 발표 및 2학기 프로젝트 방향성 설정.

강의 계획서

2학기	강좌명: Photo Craft	강사: 유별남
연락처		이메일
홈페이지		
수업개요	나의 주제를 심화 발전시켜 한 권의 사진책(Photobook)으로 완성하는 심화 과정입니다. 촬영부터 편집, 디자인, 제작까지의 전 과정을 통해 작가적 태도를 확립합니다.	
수업목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지도가 아닌 방향'을 설정하고 심리지리학적 산책(표류)을 통해 자신만의 고유한 작업 주제를 발굴한다.촬영된 이미지를 냉철하게 덜어내고(Editing) 배열(Sequencing)하여 서사를 구축하는 편집력을 기른다.디지털 데이터를 종이의 물성으로 치환하여,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진책을 출판하고 작가로서의 다음 단계를 선언한다.	
1	9/1	방향의 발견 (Direction) "지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완벽한 계획서보다 현장에서 부딪히며 나만의 사진적 화두를 찾는 프로젝트의 시작.
2	9/8	심리지리학적 산책 (Walk) 목적 없이 걷기(표류)를 통해 도시와 나의 감응을 기록한다. 머리가 아닌 발로 쓰는 사진 예세 이 훈련.
3	9/15	정물과 초상 (Portrait) 사물에 깃든 영혼과 인물의 내면을 탐구한다. 조명을 통제하여 대상의 본질을 추출하는 유형학적 접근.
4	9/22	결정적 장면 (Anchor) 나의 프로젝트를 단 한 장으로 설명하는 '얼굴' 만들기. 전체 서사를 지탱하는 기둥 이미지 (Key Visual)를 구축한다.
5	9/29	수집가의 눈 (Collector) 반복되는 패턴, 색채, 피사체를 집요하게 수집하여 시각적 유형(Typology)을 만들고 아카이브 한다.
6	10/6	덜어냄의 미학 (Editing) "사랑하는 것을 죽여라." 편집은 선택이 아니라 버리는 과정이다. A컷과 B컷을 냉철하게 구분하여 서사를 정제한다.
7	10/13	톤 앤 무드 (Tone) 프로젝트 전체를 관통하는 일관된 색감과 분위기를 잡는다. 나의 감정을 대변하는 색(Color Grading) 입히기.
8	10/20	디테일의 복원 (Retouching) 과한 보정을 피하고 빛과 질감을 섬세하게 살려내는 디지털 암실 테크닉. 인쇄를 고려한 디테일 복원.
9	10/27	종이의 질감 (Texture) 모니터의 빛을 종이의 물성으로 치환한다. 매트, 글로시 등 종이의 촉감과 내 사진의 궁합을 연구한다.
10	11/3	서사의 구축 (Narrative) 사진의 순서가 곧 이야기다. 도입부의 호기심과 결말의 여운을 배치하는 시퀀싱으로 책의 흐름을 짠다.
11	11/10	제목과 문지방 (Title) 독자를 초대하는 첫인상. 은유적인 제목 짓기와 표지 디자인을 통해 책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12	11/17	가제본 리허설 (Dummy Book) A4 용지로 접어 만든 첫 번째 책. 손으로 넘겨보며 흐름과 호흡을 물리적으로 점검하고 수정 한다.

13	11/24	에디토리얼 아틀라스 (Publishing) 아날로그 가제본을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 온라인 편집기를 활용하여 레이아웃을 확정하고 발주한다.
14	12/1	작가의 서문 (Prologue) 책이 만들어지는 동안 사진이 못다 한 말을 돋는 서문과 후기를 작성한다. 작가의 사적인 고백 담기.
15	12/8	특강 (Master Class) 특별한 사진가를 초청하여 사진의 깊이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다. 타인의 작업을 통해 나의 관점을 확장하는 시간.
16	12/15	다음단계 (Next Step) 완성된 책을 언박싱하고 서로 교환하며 서명한다. 새로운 첫걸음을 축하하는 파티.